

우리 손으로 'Clean남원'

시, 공무원·시민 등 4000여명 참가 23개 읍면동서 일제 대청소

남원시가 새봄을 맞아 “우리 손으로 함께해요! Clean남원 만들기”의 날로 정하고 17일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 실시한 클린남원 정결의 날 행사에는 관내 192개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인, 마을주민,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공무원, 시민 등 4,000여명이 참가해 23개 읍면동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시내지역인 동에서는 겨울동안 방치되어 있는 구석진 곳과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구석구석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읍면지역에서는 농경지 주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비롯하여 산과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도 남원시민의

뜻깊은 요청에서 의용소방대원, 그린리더요원, 환경관리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명과 함께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시에서는 깨끗한 남원을 위해 올해에도 청결의 날을 11월까지 시청, 읍면동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과 함께 매월 1회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노인활동지원사업 참여자 823명이 11월까지 읍면동 취약지역을 집중 돌보아다니면서 청소를 실시하며 모니터 요원이 되어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한다.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8,500만원을 들여 10명의 하천 정화사업요원이 9월 말까지 관내 요천, 광치천 등 주요하천에 대해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명소인 교통산 둘레길 8.2km 지역 봉사단체인 남원청년회의소와 남원시 간의 흠뻑분양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민간 자율적으로 쓰레기 줍기, 둘레길 가꾸기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남원 강산 되살림 사업 일환으로 관내 주요 산강 둘레길 하천 등에 대해 자원봉사단체, 기관, 기업 등과 관리구역을 정해 환경 정화활동도 실시한다.

이환주 시장은 우리 남원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청정 도시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내집 앞 청소하기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춘향테마파크 새 이름 짓는다

남원시, 시민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28일까지 실시

남원시는 다양한 컨텍스트를 갖춘 춘향테마파크를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남원시가 검토하고 있는 새 이름은 남원의 지역성을 대표하고 있는 달을 소재로 삼아 첫번째 ‘남원 달 오름 공원’, 두번째 ‘춘향 달맞이 공원’, 세번째 ‘춘향 달 마실 공원’ 중에서의 의견을 묻는다.

이름짓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18일부터 28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시는 춘향테마파크가 현실적으로 광한루원을 대변하는 관광객들이나 여행자들이 주제의 중복성이라는 선입견으로 춘향테마파크에 들르지 않으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춘향’이라는 주제의 국한성을 뛰어넘고 다양한 콘텍스트를 수용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하여 관광객을 유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대대적인 하천관리 나서

고창군이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관리와 정비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아산면 주진천 등 5개 지방하천에 6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하고, 고수면 고수천 등 2개 생태하천에 288억원, 무장면 죽림천 등 3개 소하천에 92억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한다. 아산면 주진천, 부안면 용산천, 흥덕면 갈곡천, 해리면 해리천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며 고수면 고수천, 고창읍 의정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장면 죽림천·정거천, 흥덕면 북룡천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저수호안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을 개선한다.

군은 하천의 효율적인 재해예방과 유지관리를 위해 7억원의 예산을 14개 읍·면에 재배정해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상퇴적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및 구조물 유실 등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협약 체결

관내 5개 금융기관과... 융자금 최고 5000만원 이내 3년간 연 4%까지 이자 지원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17일 영상회의실에서 농협은행, 순창군신협조합, 순정축협, 순창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등 관내 금융기관 5개소와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이자차액 보상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은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 중·개축비, 수선비, 브랜드 개발비 등 기타 경영인전을 위해 권장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본인 융자금 최고 5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3년간 연 4%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간 주민등록상 주소가 순창으로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군은 공고 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늘 협약에 따라 협약된 금융기관들은 순창군이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시까지 책임 관리하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한재현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장, 최기환 순정축협 조합장, 김규철 순창군신협조합장, 설재천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김규수 순창신협 이사

장 등이 참석했다.

황숙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 침체와 지난해 메르스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열악한 자금난을 해소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상권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차보전사업 이외에도 1억원을 투자해 소상공인이 사업장 시설 개보수, 브랜드개발, 노후장비 교체 시 총사업비 50% 이내 1개소당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순창=구민규 기자

남원시, 슬레이트 처리 우수기관 표창받아

남원시는 환경부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2015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슬레이트 처리 목표 달성률, 지방비 확보 기여도, 사업 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남원시는 지난해 7억 1,200만원을 투입해 주택 368동의 4만 4,700㎡의 슬레이트를 처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3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환경부에 건의로 3억 4,3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주택 185동을 추가 처리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하

여는 건축부서와 연계하여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및 수선유지급여사업, 취약지역생활개선 개조사업 등으로 지방개량을 실시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도 5억 7,120만원을 투입해 170동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소, 테크노파크와 비즈니스 테이블 개최

(재)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소가 전북 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내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비즈니스 테이블’을 개최했다.

최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고창식품기업포럼 회원사 10개사를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이날 전북 테크노파크 김용배 기업지원단장을 비롯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고창군 식품기업포럼 실무자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 내 식품기업들은 경영전략, 재무·회계, 인사·노무, 생산·품질, 판매·마케팅, 기술개발, 특허·법률, 디자인·인증, 정보화, 지원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통해 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영의 어

려움을 해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김용배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고창군 식품기업의 참여로 식품산업에 대한 기업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기쁘다”며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직접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소 문규환 연구소장은 “고창군의 식품산업(건강기능식품 등)은 특화생물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업체들이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페루 리마 개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 참석

고창군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에 참석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페루의 리마(Peru)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에 참석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네스코국가위원회와 MAB국가위원회, 각 국가별 생물권보전지역 120개국 61개 지역 관계자 등 약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MAB국제조정위원회’도 함께 열렸다.

국내에서는 환경부를 비롯해 MAB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 제주도 신안군 광릉숲 설악산 등 5개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함께 참석해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그동안 활동내용 소개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고창군은 36개국 60개 지역으로 구성된 제8차 세계 천연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와 7개국이 가입한 동북아시아 네트워크 회의에도 참석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